

『人文科學』 제120집

2020년 12월

자율 공동체로서 서구대학의 역사와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학교)*

윤혜준**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세대학교가 1915년에 태어난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 연희전문학교)을 계승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¹⁾ 학내외의 공식, 비 공식 담론에서 ‘기독교 대학’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묻고 답하려는 시도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 연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의한 “연세 이념”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이다.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

* 이 논문은 2020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원고를 세심히 읽어주신 세 심사 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연세대학교 교수

1) 「연세의 발자취」, <https://www.yonsei.ac.kr/sc/intro/history1.jsp>

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이 인용문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요한복음」 8장 31~32절(“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을 염두에 둔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요약했다.²⁾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 “창의력”, “비판력”, “학문의 발전”, “정의감”, “인류의 번영” 등은 기독교적 배경과 상관없는 일반 고등 교육 기관들의 ‘이념’이나 ‘정신’에서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 “진리와 자유의 정신”도 이 표현은 성서 원문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는 핵심적 전제를 삭제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부인하는 ‘진리’와 ‘자유’로도 얼마든지 흘러갈 여지를 남긴다.³⁾

연세대학교가 공표한 “연세 이념”에서 기독교적 색채가 가장 뚜렷한 표현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로 보인다. 그러나 “진리와 자유의 정신”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듯이, “열린 마음”과 “이웃을 위한 봉사”도 기독교 정신과 인연을 끊기는 어렵지 않다. 심지어 “열린 마음”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명분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도 용이하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인 성소수자 대한 “열린 마음”이 없다며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이미 외국은 물론이요 국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⁴⁾ 이러한 틈새를 타고, 최근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의 연관성을 굳이 내세울 필요도

2) 「연세 비전」, <https://www.yonsei.ac.kr/sc/intro/ideology.jsp>

3)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재직했던 고 마광수 교수가 노골적인 예이다. 「미루지 말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라는 허무주의자」(2012년 6월 15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6151025202#csidx6682a7fc2b26e79bd3ebaf1eef19eb9 참조.

4) 넘쳐나는 샘플에서 돌만 뽑는다면, 「보수개신교는 왜 동성애자 혐오를 신앙화했을까?」 『한겨레신문』(2020년 6월 23일), <http://www.hani.co.kr/arti/well/news/950656.html>와 「개신교 보수우파 폭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프레시안』(2020년 8월 21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017071070712#0DKU>이 있다.

없는, 또한 기독교의 “열린 마음” 부재를 비판하는 구호로 종종 동원되는 “인권”을 “연세정신”으로 규정하고, “인권 감수성”을 모든 연세대학교 입학생에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시도마저 있었다.⁵⁾ 이에 대한 학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연세정신과 인권」은 필수과목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⁶⁾ 여전히 중요한 기초 과목으로서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연세정신”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논쟁에 참여할 뜻은 없다. 다만 “연세정신”의 근간이 조선기독교대학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을 따름이다. 이 물음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연이어 묻고자 한다. 조선기독교대학은 어떠한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이었는가?⁷⁾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글은 조선기독교대학의 역사에서만 찾지 않을 것이다. 조선기독교대학은 ‘연희전문학교’라는 일본어/한자어 이름을 강요당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대학’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대학다운 교육을 지향했다. 이 사실의

-
- 5) “인권 감수성”은 「연세정신과 인권」의 2019년 “수업목표 및 개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인권 감수성” 교육의 핵심은 각기 3주, 4주에 가르치는 “인권과 사회 정의”와 “인권과 젠더(평등)”일 것임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세정신과 인권」 <연세포탈서비스>
<http://ysweb.yonsei.ac.kr:8888/-Yonsei>.
 - 6) 해당 논란은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젠더? 성평등? ... 연세대 ‘인권 강좌’ 개설 논란」 『크리스천투데이』(2019년 8월 7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4471>, 「“여성우월 교수가 페미니즘 강의”... 연세대 ‘인권 교육’ 논란」 『뉴데일리』(2019년 8월 13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3/2019081300225.html>. 「연세대, 인권교육강좌 결국 ‘필수과목’ 배제 논란」 『프레시안』(2019년 9월 20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57874#0DKW>
 - 7) 본 논문은 역사 연구로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에 대한 평가나,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대학’들의 오늘날 한국 개신교와의 관계는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제들은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나 이 글의 영역을 벗어난다. ‘기독교 대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흔치 않고 해도,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소병철, 「칸트적 이성 종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기독교 현실의 부정성」, 『인문과학』, 113호, 2018, p. 119-25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필자는 한국 사회 및 전 세계를 병들게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의 부정성이 아니라, 합리성을 내세우지만 스스로의 논리적 전체에 대한 회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권위를 구축하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부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의의를 파악하려면, ‘대학’이란 무엇이었는지, 대학의 역사를 탐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역사는 유럽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 글은 중세에서 출발하여 먼저 중세 대학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근대 시대에 서구 대학이 직면한 도전들을 기술한 후, 마지막으로 조선기독교대학이 12세기부터 이어진 서구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전통 위에 세워진 한반도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대학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핵심적 측면들을 강조할 것이다.

II. 자율 공동체로서의 중세 유럽 대학

대학은 중세 유럽이 인류에게 남긴 살아있는 유산이다. 발터 뤼에그(Walter Rüegg)의 지적대로, 근대와 탈근대로 변하며 유럽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던 군주제(regnum)와 성직제도(sacerdotium)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반면, 대학(studium)은 그 본 모습대로 살아남았다.⁸⁾ 일단은 지식 전수 기능에 있어서 그러하다. 지식 탐구를 체계적인 방법론 위에 세워놓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 속에 볼로냐(Bologna)와 파리(Paris)에 대학들이 등장했다.⁹⁾ 체계적 지식 전수의 장으로서 대학의 역할 및 기능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전되고 있다. 지식의 체계적 전수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서 지식을 전수받으러 모이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고, 선생과 학생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환경이 필요하다. 볼로냐와 파리에서 12세기에 대학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전문가와 학생의 만남이 공간과 제도로 굳어지는 점진적 과정으로서, 특정 연도나 한 시점을 ‘탄생’의 출발점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¹⁰⁾ 지식 탐구 및 전수를 위해 형성된 공동체는 당시의 법률 용어를 따라

8) Walter Rüegg, “Forewor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edited by H. de Ridder-Symo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xix.

9) Norbert Ricken, “The Deliberate University: Remarks on the ‘Idea of the University’ from a Perspective of Knowledge,”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6(5), 2007, p. 487-88.

“universitas,” 즉 자치 길드로 분류되었다. 이 특정 자치 길드의 정체성을 명시하기 위해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교수들과 학생들의 자치 길드) 또는 “universitas studii”(교육 자치 길드)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중세 교육 자치 길드의 일반적인 명칭은 “studium generale”(‘보편 교육원,’ 축약해서 “studium” 또는 “studio”)였다. 이 표현에서 “generale”는 길드 참여 자격이 해당 길드가 위치한 도시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을 뜻했다.¹¹⁾ ‘대학’을 일컫는 말로 굳어진 “university”에는 이렇듯 중세 자치 길드의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유럽은 물론이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일찍 선생과 학생의 “universitas”(이하에서는 “자치 길드”)가 볼로냐에 등장한 것은 이 도시의 지리적 위치 덕분이었다. 볼로냐는 알프스 북쪽 유럽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 평지에 자리 잡았기에, 많은 순례자와 성직자들이 이 도시를 오고 갔다.¹²⁾ 이곳에서 11세기에 페포(Pepo) 등의 법학자가 로마법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볼로냐 법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신성 로마제국의 독일인 황제들에게 로마법의 가치를 설파했다. 황제들도 로마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 유익한 일임을 인정했다. 로마법 전문가로서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유럽 전 지역에서 볼로냐의 유명 법학자들에게 로마법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개 라틴어 공부를 제법 한 20대 성인들이었다. 볼로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외국인 및 이탈리아 반도 타 지역 출신 법학도들은 자치 길드를 만들어 볼로냐 도시 정부에 맞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다. 학생들의 길드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도 압력을 넣어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볼로냐 법학도들이 제국의 법치를 떠맡을 요원들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프리드리히(Friedrich) 1세는 1155

10) Walter Rüe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7.

11) Rüegg, *ibid.* p. 8.

12) “Bologna,” *Treccani*.

https://www.treccani.it/enciclopedia/bologna_%28Enciclopedia-Italiana%29

년에 이들이 볼로냐 도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황제 칙령으로 보장했다. 「자격보증서」(Authentica Habita)로 불린 이 문서가 표명한 학생 길드 자치권 보장의 근거는 “학문(scientia)을 통해야 이 세상이 계몽되고(illuminatur) 백성들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종인 나 황제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대의명분이었다.¹³⁾ 그러나 황제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황제가 볼로냐에 상주하지 않는 한 칙령 그 자체만으로는 볼로냐에 거주하는 외국인/외지인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호해줄 수 없었다. 볼로냐 학생들은 도시 정부의 간섭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단합된 단체 행동을 통해 지켜내야 할 경우들도 많았다.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극단적 조치는 집단적으로 볼로냐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도시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러한 집단행동을 두려워하는 볼로냐 시는 학생들 자치 길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12세기를 거치며 볼로냐의 자치공동체는 도시 안에 있으면서도 도시의 지배권 밖에 있는 특수한 자치 공동체로 공인되었다.¹⁴⁾

중세 도시와 해당 도시 안에 자리 잡은 대학의 상호 긴장 관계는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 초기 역사가 잘 보여준다. 케임브리지의 자치공동체는 학생이 중심인 볼로냐 자치 길드의 모델이 아니라 파리(Paris)의 교수 학생 자치 길드를 따른 옥스퍼드(Oxford)에서 파생되었기에, 파리나 옥스퍼드와 마찬가지로 선생들이 길드를 주도했다. 파리에 있던 학자들 일부가 옥스퍼드로 이주해서 만든 옥스퍼드의 교육공동체가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의 시초이다. 옥스퍼드 학생들과 옥스퍼드 시의 갈등(소위 “town v. gown”)은 빈번했다. 급기야 유혈사태까지 야기한 심각한 충돌의 결과, 1209년에 일부 구성원이 옥스퍼드를 떠나 케임브리지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파리나 옥스퍼드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공동체가 구성됐다. 케임브리지의 교육공동체는 1233년에 교황 그레고리오(Gregorius) 9세의 칙령을 통해 자치 길드로 인정받았다. 이 칙령에 의하면 케임브리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도시 정부가 아니라 학자들의 대표

13) Rüegg, “Themes,” p. 12-15.

14) Rüegg, *ibid.* p. 20, 35.

나 일리(Ely) 주교에게만 재판관을 받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섬나라 영국의 교수·학생 자치 길드는 로마에 있는 교황의 권위에만 의지할 수 없었기에 영국 왕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영국 왕들은 유능한 행정가와 외교관을 키워주는 대학이 자신에게도 유익함을 인지했기에, 도시가 함부로 대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1231년 헨리(Henry) 3세는 교황의 칙령보다 먼저 케임브리지의 교수·학생 자치 길드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다. 한 세기 후부터는 케임브리지 대학 공동체는 도시 정부와 함께 임대료, 식료품 물가, 공중위생 등에 대한 규제에 관여했다. 또한 공동체의 수장 "chancellor"¹⁵⁾가 학생 또는 선생들이 연루된 (신체 상해나 살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법적 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할 권한을 행사했다.¹⁶⁾

중세의 교수·학생 자치 길드는 ‘법인’의 지위를 누렸으나 흔히 ‘대학 법인’ 하면 떠올리는 강의실 건물이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 파리의 교육 공동체는 12세기부터 파리의 여러 교회나 수도원을 임대해서 강의실로 사용했다. 파리 대학은 1210년에 프랑스 왕 필립 오귀스트(Philippe Auguste)에게 자치권을 얻었고 1215년에 교황 이노첸시오(Innocentius) 3세에게 자치권 공인 칙령을 받았다.¹⁷⁾ 그러나 파리 대학을 대표하는 학부(facultas)인 신학부도 자체 건물은 15세기 와서야 소유했다. 볼로냐의 학생 길드도 한 동안 사저나 교회 건물들을 빌려 교육 및 기타 업무를 수행했다.¹⁸⁾ 그 다음 세기에도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었다. 프라하(Prague)에 카를(Karl) 4세가 1347년에 대학을 공인해주었을 때 대학 건물은 따로 없었고, 수도원 건물들을 임대해서 강의와 교육을 했다.¹⁹⁾ 그렇긴 해도 자체 건물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기

15) 오늘날에도 영국의 대학 총장은 이 명칭을 쓰지만, 대개는 유명 인사가 명예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총장업무는 "vice-chancellor"가 수행한다.

16) Elisabeth Leedham-Green, *A Concise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4-6, 10-11.

17) Colin Jones, *Paris: Biography of a City*, London: Penguin, 2004, p. 65-66.

18) Aleksander Gieysztor, "Management and Resourc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137.

19) Peter Demetz, *Prague in Black and Gold: The History of a City*, London: Penguin, 1997, p. 83.

에, 자치권을 획득한 중세 대학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건물 확보가 반드시 필요했다. 강의는 수도원을 빌려서 하더라도 (외지/외국 출신 ‘유학생’들인) 학생과 교수들이 거주할 건물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필사본 시대였기에 공동으로 이용할 값비싼 장서들을 소장할 공간도 필요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도가 “collegium”이었다.

중세 대학으로 공부하러 새로 온 학생들은 지금의 대학생보다 어린 청소년 나이였다.²⁰⁾ 이 점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학 공부를 위해 볼로냐에 온 20대 학생들은 예외적이었다. 이 청소년 학생들이 자고, 먹고, 절제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과 같은 공식화된 과정이 아니라, 대학이 자리 잡은 도시로 공부하러 온 학생을 특정 교수(magister)가 제자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했다. 이 미 1215년에 파리의 교육 자치 길드 구성원은 “확실한 교수 밑에 있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²¹⁾ 파리 대학의 학생들은 특정 교수의 제자로 등록되었고, 해당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collegium”에서 거주했다. 이중 가장 유명한 “collegium”인 콜레주 드 소르본(Collège de Sorbonne)은 숙식 제공에 교육 서비스를 가미한 모델을 선보였다.²²⁾ 프랑스 혁명 이후로 중세 전통의 맥이 끊긴 파리 대학과는 달리 오늘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는 중세의 “collegium”이 건축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관습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의 모든 학생 및 교수는 특정 칼리지(college)에 소속된다. 두 대학의 칼리지들에서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할 뿐더러, 소르본의 모델을 따라 칼리지 소속 교수들에게 개인이나 그룹으로 학업 지도를 받는다. 중세 대학의 “collegium”(이하에서는 “자치 공동체”)은 말 그대로 ‘같은 법(lege)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예배와 기도회 등 종교 활동 의무를 비롯한

20) Rainer Christoph Schwinges, “Student Education, Student Life,”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231.

21) Rainer Christoph Schwinges, “Admission,”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173.

22) Jones, *Paris: Biography of a City*, p. 67.

생활 규범을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했다. 이곳에서 “화목하고 공동체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이며 학자답게 살”(vivere socialiter et collegialiter, et moraliter, et scholariter)도록 지도하는 것은 중세 대학의 중요한 교육 목표였다.²³⁾ 학문 전수만이 아니라 생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품을 키워주는 것이 중세 유럽 대학의 존재이유였다.

학생과 교수들이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건물들이 도시 안에 들어서자 더 이상 도시 정부와 불화를 핑계 삼아 자치 길드의 일부가 다른 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권세가들의 기부금을 받아 아름답게 지은 자율공동체 건물들은 도시 경관의 자연스런 일부를 이루므로 도시의 건축 자산을 풍요롭게 해주었다.²⁴⁾ 그러나 대학과 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당장 도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 학문이 아니었다. 중세 대학의 기본 교육과정은 “일곱 자유 학문”(septem artes liberales)이었다. 이 과목들은 (고급 라틴어) 문법, 논리학, 수사학으로 구성되는 언어 관련 “3학”(trivium)과 수리 관련 “4학”(quadrivium), 즉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이었다. 모두 현실적 유용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artes liberales”라고 불렸다.²⁵⁾ 이 말이 영어로 “liberal arts”로 변형되어 ‘인문학’을 뜻하게 된 것은 원래 의미의 반쪽만 남겨놓는 용법이다. 물론 수리 관련 “4학”도 관련 분야의 라틴어 정전을 강독하는 데 머물렀기에 ‘인문학’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²⁶⁾ “artes liberales”는 ‘인문학’ 보다는 “실용 기술”(artes mechanicae)에 대비되는 ‘순수학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²⁷⁾ 기초학문을 배운 후 신학, 법학, 의학의 세 전문 분야를 연구하면 전문

23) Gieysztor, “Management and Resources,” p. 138, 142.

24) Gieysztor, *ibid.* p. 139.

25) Gordon Leff, “The Trivium and the Three Philosophi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307-10; Ernst Robert Curtius,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trans. by Willard R. Tras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 36-42.

26) John North. “The Quadrivium,”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337-59.

직으로 생업을 꾸릴 수 있었으나, 세 전문 분야의 일부만 개설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는 중세 대학들도 많았다. 중세 대학은 비실용적 순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본질적 업무였다. 중세 대학은 도시 속에 자리 잡은 별도의 자치 길드일뿐더러 이익과 효용 등 도시의 가치들과는 다른 비실용적 가치들을 추구했다. 문명 비평가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의 표현대로, 중세 유럽 대학은 도시 안에 자리 잡은 “능동적 수도원”이었다. 대개 교수들이 수도사 신분이었고 자율 공동체도 특정 수도회와 연결되었기에, 중세 대학과 수도원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 둘은 그 형태에서도 유사했다. 중세 대학은 수도원처럼 도서관을 갖춘 교육과 수련 공동체였고, 도시 속에서 자치권을 누리는 특권적 공간이었다. 또한 대학은 수도원처럼 도시의 세속적 경제논리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시장경제가 번창하던 런던에는 대학이 생기지 않았고(런던 대학은 19세기에 설립됐다), 한적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생긴 것 자체가 대학 공동체의 “능동적 수도원”으로서의 본질을 증언한다고 뎀포드는 지적한다.²⁸⁾

“능동적 수도원”으로서 중세 대학에서 공동체의 주도권을 행사한 구성원 집단은 수도사처럼 독신이었던 “magister”들이었다. 이 말을 ‘교수’로 곧바로 번역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예로 들면, 대학에 청소년 나이에 들어와 “일곱 자유 학문”을 배운 사람은 기초학문 수료증인 “magister artium”(M. A.) 학위를 받았다. 이때 나이는 대략 20대 초반이었다. 이 자격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전문 분야인 신학, 법학, 의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상당수의 기초학문 수료자들은 이러한 전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서 남은 젊은 날을 소비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바로 대학을 떠날 수는 없었다. 이들에게 “magister artium” 학위를 수여할 때 최소 2년간 무보수로 후배들을 가르치라는 조건이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위 취득 후 ‘교

27) Rüegg, “Themes,” p. 27.

28) Lewis Mumford,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1, p. 276, 412.

수'로 봉사했다. 그 결과 대학 교수진의 상당 부분을 이 젊은 기초학문 수료자들인 “대리 교수”(magister regens)들이 차지했기에,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이들 “대리교수”들은 자치 길드의 각종 회의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대학 대표자 등 ‘보직 교수’ 선출을 비롯하여 대학의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은 이들만이 행사할 수 있었다.²⁹⁾ 중세 대학의 자율과 자치는 이렇듯 오늘날 대학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미쳤다. 이후 유럽 대학의 역사는 이러한 자치권을 도시정부, 군주, 정치권, 시장 등 외부 세력이 빼앗거나 제어하려는 시도로 요약된다.

III. 근대의 도전과 흠볼트적 대학의 이상과 현실

중세 대학의 자치권은 근세로 넘어오며 다각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도시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법적인 지위를 자신의 책임 하에 보호하거나 제약하려 시도했다. 1391년 페라리(Ferrara) 시는 그곳 대학에 감사관들을 “개혁관”(reformatores)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하여, 페라라 공작과 도시 정부가 공동으로 대학 운영 및 교수직 임명에 관여했다. 베네치아(Venezia) 공화국 정부도 유사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인 파도바(Padova)에 있는 대학에 1406년에 “개혁관”들을 파견했다. 마침내 이탈리아 및 유럽 최초의 대학 볼로냐에도, 이 지역이 로마 교황 영토로 확고히 굳어진 1506년, 로마에서 추기경과 16명의 “개혁관”을 파견하여 대학을 직접 관리했다. 이러한 ‘낙하산’ 보직자들의 힘은 이후로 점점 더 강해졌다.³⁰⁾ 곧이어 대학 뿐 아니라 교회 자체를 ‘개혁’한다는 종교개혁은 대학의 자율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파리 대학의 경우, 이 대학 신학부인 소르본의 교수들은 사회의 그 어떤 구성원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선봉대로 나섰다.³¹⁾ 프랑스

29) Leedham-Green, *A Concise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p. 15.

30) Aleksander Gieysztor, “Management and Resources,” p. 132-33.

는 종교전쟁을 거치며 가톨릭교회와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성공한 지역들에서는 교회와 수도원 등 가톨릭교회의 자산을 국왕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공화국 정부가 접수했다.³²⁾ 개신교 국가의 권력자들은 “능동적 수도원”인 대학들의 자치권에도 손을 댔다. 영국 왕 헨리(Henry) 8세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이후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은 영국교회의 수장인 국왕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공인한 국가교회인 성공회(Church of England)의 신조와 예배의식을 수용해야 했다. 영국 왕실은 나아가 1604년부터는 두 대학에 각기 하원 의석 두 개씩을 배당하므로 국가 운영에 동참시켰다.³³⁾

유럽을 근대사회로 이끈 힘들은 중세대학의 자치권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 내용도 바꿔놓고자 시도했다. 성경 등 고전을 원어로 읽어 진실을 밝히려는 인문주의(humanism)는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배경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라틴어가 유일한 학문과 교양의 언어였던 중세 시대가 저물고 성경의 원어들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라틴어에 있어서도 고대 라틴어의 순수성을 복원시키고자 한 인문주의 운동은 처음에는 소수의 지식인 동호회들이 주도했으나 16세기부터는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세의 “일곱 자유 학문”과 구분되는 원전 및 원어 연구로서 ‘인문학’은 “studia humanitatis,” “studia humaniora,” “litterae humanitatis”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교양인이 되려면 인간의 “인간됨”(humanitas)의 의미를 “글”(littera) 즉 고

31) Mack P. Holt,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2-16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17, 132. 소르본 신학자들의 전투적인 전통 수호의 역사는 파리 대학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정현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보편적 질료-형상론 비판의 발전 과정」, 『인문과학』, 119, 2020, p. 216 및 p. 216 각주 65 참조.

32) Maarten Prak,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 by Diane Web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228-29.

33) Notker Hammerstein, “Relations with Authority,”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2: *Universities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edited by Hilde de Ridder-Symo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35.

전 텍스트를 원어로 읽으므로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은 “일곱 자유 학문”의 라틴어 정전들에 모든 지식이 변함없이 담겨 있다는 중세의 학문관을 배격했고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³⁴⁾ 이러한 시간성은 “새로움”(novum)에 대한 가치부여와 맞물려 있었다. 학문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대가들에 대한 존경과 이해에서부터, 신대륙 발견 등이 입증하듯,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변하기 시작했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저술 제목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즐겨 달기 시작했다. 에라스무스(Erasmus) 등 인문주의자들이 주창한 전통과 역사를 그 “원천에서부터”(ad fontes) 탐구하지는 방법론도 과거에 대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지향했기에 “새로움” 숭상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³⁵⁾

새로움의 추구는 실용성의 추구하고 떼어놓을 수 없었다. 새로운 지식의 가치는 새로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성으로 정당화되었다. 할레(Halle)와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는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고등학문의 목적을 “삶의 쓰임새를 위하여”(ad usum vitae)라는 구호에 담았다. 유용성과 실용성을 내세우는 고등교육은 중세대학의 “일곱 자유 학문” 교육이 함축한 ‘실용성으로부터의 자유’를 폐기하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학을 국가와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지식을 연구하고 전수해주는 곳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국가와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목사, 사제, 의사, 법률가, 관료 등 전문 지식인을 키워내는 대학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³⁶⁾ 대학이 고급 전문 지식 전수 기관으로 그 성격이 굳어짐과 동시에 대학의 고등교육에 선행하는 중등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중세대학 학생들은 청소년 나이였을 뿐 아니라 중세대학의 교육

34) Walter Rüegg, “Epilogue: The Rise of Humanism,”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446.

35) Walter Rüe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2: *Universities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p. 16-17, 35.

36) Rüegg, *ibid.* p. 18, 30.

과정(특히 언어 관련 “3학”)은 사실상 중등교육 기능도 수행했었다.³⁷⁾ 이제 대학의 기능이 전문화된 교육으로 기울게 되면서 기초 인문교육은 중등학교로 이관되었고, 이러한 목적으로 중등학교들이 신설되었다. 대학의 정체성은 중세에는 교육 공동체의 자치 길드로서의 자율성이 그 핵심이었던 반면,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식의 전문성과 등급으로 대학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대학은 보편적인 교양교육이 아니라 특수한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고급 학교’(haute école, Hochschule)로 인식되었고, 국가와 사회는 대학에게 국가교회 및 국가사회의 전문가 교육 기관(seminarium ecclesiae ac reipublicae)의 역할을 맡도록 요구했다.³⁸⁾

대학을 전문 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18세기에 들어서서 전통적인 대학의 교양교육 기능을 아예 없애버린 기능적 전문교육기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 기관들은 국가가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운 관립학교들로서, 자율 공동체로서 중세 대학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달랐다. 1717년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이 빈(Wien)에 세운 공업전문학교, 1741년에 설립된 영국 울위치(Woolwich) 포병전문학교, 1768년에 출범한 함부르크(Hamburg) 상업전문학교, 1773년에 개교한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Peterburg) 광산전문학교 등이 이러한 예들이다.³⁹⁾ 국립 전문교육기관은 중세대학의 교양교육 뿐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세대학들은 서유럽 전체가 같은 종교를 공식적으로 믿던 시대에 만들어진 ‘기독교 대학’들이었다. 근대시대에 등장한 국립 전문교육기관은 교회와 인연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요, 이러한 국가주도 실용교육 분위기는 기존 대학들의 종교교육도 약화시켰다. 계몽주의자들이 보기에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중세가 낳은 대학은 ‘개혁’의 대상이었다.⁴⁰⁾ 이들이 생각

37) Schwinges, “Student Education, Student Life,” p. 231-33.

38) Willem Frijhoff, “Pattern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2: *Universities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p. 54-55.

39) Frijhoff, *ibid.* p. 58.

40) Adam Smith의 *The Wealth of Nations* (1776), Part V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의 태만을 비

한 ‘개혁’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실무교육 방향으로의 재편을 뜻했다. 이러한 ‘개혁’에 특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구적 이성과 실용성에 역행하는 기독교 영성 교육이었다. 근대시대에도 공격적으로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내던 수도회인 예수회(Societas Jesu)의 대학들을 1760년대와 1770년대에 프랑스, 합스부르크 제국, 스페인 제국 등에서 국가가 강제로 몰수한 것이 가장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전반적인 탈종교화의 흐름은 유럽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⁴¹⁾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말에 발발한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정점에 이른다. 혁명세력은 파리 대학 등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프랑스의 대학들을 폐교시키고, 그 대신 새로운 세속 공화국에 필요한 관료와 전문가들을 종교색을 말끔히 씻어낸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키워내자며 “고등 교육원”(grandes écoles)들을 만들었다.⁴²⁾

연구중심 대학의 원형으로 흔히들 거론하는 “훔볼트적 대학”(Humboldtian university) 모델은 프랑스식 국립 고등교육기관 모델에 맞서서, 고급 전문 지식을 탐구하면서도 자율 공동체로서 대학의 전통도 보존하려 했던 시도를 담고 있다. 프랑스의 전문화된 국립 고등교육원들은 국가가 국가이념의 준수와 실무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할뿐더러 학생들의 복장까지 규제하는 일종의 사관학교였다. 권력의 집중화를 꿈꾸는 유럽의 여러 군주들이 프랑스식 모델에 매력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는 프랑스식 국립 전문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프로이센 왕을 설득해서 1810년에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베를린(Berlin)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훔볼트와 베를린 대학 창설에 함께 관여했던 개신교 신학자 프리드리히 쉴라이어마허(Friedrich Scheiermacher)는 실용적 지식

판한 대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vol. 2,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p. 760-61 참조.

41) Frijhoff, “Patterns,” p. 75-77.

42) Walter Rüe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1800-1945)*, edited by Walter Rüeg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3-4.

의 생산이나 전수보다는 지식 탐구 그 자체가 대학의 존재이유라고 믿었다. 대학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였다. 이 ‘자유’는 중세 대학의 자율공동체 전통을 계승하는 대학의 “자치”(Selbstverwaltung)도 중시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개별 구성원 각자의 자유, 즉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유”(Lehr- und Lernfreiheit)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근대정신을 추종했다. 국가의 역할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되 대학의 포괄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교수 임명에는 관여하지만 그 외의 대학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흠볼트나 술라이어마허가 생각한 국가와 대학의 이상적인 관계였다.⁴³⁾ 흠볼트적 모델은 베를린 대학뿐 아니라 독일어권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상을 그대로 실현시키기는 어려웠다. 베를린 대학 등이 학교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자교가 흠볼트적 이상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으나, 역사적 실상은 달랐다.⁴⁴⁾ 일단 정치권력이 대학의 자유를 보호만 해주고 간섭은 안 하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연구중심 모델을 구축하다 보니 학부생 교육에는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를 대학에 돈을 대주는 국가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흠볼트적 모델이 지양하고자 했던 프랑스 식 국립 전문 교육기관과 내용상 다를 게 없는 결과를 낳았다.⁴⁵⁾

학문연구의 자유를 누리는 자율공동체라는 흠볼트적 대학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은 정작 독일보다는 영국과 미국 대학들이 갖추고 있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무계중심체인 “구성 권리자 칼리지”(constituent college)들은 각기 독립적인 재정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43) Rüegg, *ibid.* p. 4-5; Edward Shils and John Roberts, “The Diffusion of European Models outside Europe,”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1800-1945)*, p. 169.

44) Sylvia Paletschek, “The Writing of University History and University Jubilees: German Examples,” *Studium*, 5.3, 2012, p. 150-51.

45) Christophe Charle, “Pattern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1800-1945)*, p. 60-61.

이들의 독립 자산에 기초한 자율권은 재산권을 견고히 보호하는 영국법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 독일 대학들의 최신 연구 장려 분위기는 그때까지 다소 연구에는 미온적이었던 영국의 오래된 대학들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학문의 자유 및 학문적 수월성 추구는 중세가 물려준 자치권의 자양분을 받으며 쉽게 꽃필 수 있었다.⁴⁶⁾ 영국인들이 이주하여 만든 북미대륙 식민지에도 칼리지들의 자율과 자립의 전통은 확고하게 뿌리내려져 있었다. 1636년 북미주에 처음 세워진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도 이를 그대로 영국적인 칼리지 모델을 그대로 따랐다. 1701년에 출범한 예일(Yale) 칼리지도 마찬가지였다. 두 대학 모두, 콜레주 드 소르본을 기부자 로베르 드 소르본(Robert de Sorbon)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중세 파리 대학⁴⁷⁾ 및 이를 계승한 영국의 관행을 따라, 기부자(John Harvard와 Elihu Yale)의 이름이 학교 이름이 되었다. 두 대학 모두 영국의 칼리지들이 그러하듯 기초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교회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기관들로 출범했다.⁴⁸⁾ 대학의 자치와 자율 기반이 튼실한 미국에 흠볼트적인 연구중심 대학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1876년에 개교한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이 대학 역시 거액 기부자의 이름이 학교 이름이다)으로, 미국 대학들은 전문 연구와 학부교육의 같등이라는 흠볼트적 모델이 제기한 문제를 대학원(graduate school)과 학부를 구분하므로 창의적으로 해결했다.⁴⁹⁾ 중세대학의 자치전통을 지켜내면서도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이 탁월한 조합을 만들어낸 영미의 오래된 대학들이 오늘날 세계대학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⁵⁰⁾

46) Rüe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p. 12-14.

47) Jones, *Paris: Biography of a City*, p. 68-70.

48) Hammerstein, "Relations with Authority," p. 272-73; Shils and Roberts, "The Diffusion of European Models outside Europe," p. 165-66. 미국 영어에서 '대학'을 지칭하는 일반 형용사가 "college"로 굳어진 것도("college student," "college life," "college sports" 등)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된다.

49) Shils and Roberts, *ibid.* p. 168, 170.

50) 2021년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19세기 이전에 개교

흡볼트적 연구중심 대학의 “탄생”이 중세 대학의 “죽음”을 의미했다는 슈나 요시미(Shuna Yoshimi)의 주장은 서구대학의 역사를 왜곡할 여지가 많다.⁵¹⁾ 중세 대학의 자율 전통을 죽이기는커녕 굳게 살려낸 영미 대학들이 흡볼트의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이상도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IV. 자율 공동체로서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

중세서구 대학의 자율성과 근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의 수월성 및 실용성을 조화시킨 미국 사립대학들은 메이지(Meiji) 유신 이후 일본에 등장한 서구식 대학들의 모델이 되었다. 1858년에 개교한 동아시아 최초의 서구식 고등교육 기관인 게이오(Keio) 대학은 문학, 경제, 법학, 의학 네 개의 전공을 개설하였고, 미국식으로 대학원과 학부를 구분하였다. 유럽대륙 모델을 따라 국립 교육기관으로 세운 도쿄(Tokyo) 대학도 학제에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했다.⁵²⁾ 서구 문명이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파되던 시대에 조선에 세워진 조선기독교대학은 북미 선교사들이 직접 세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영미의 자율적 사립대학의 채플과 교목실이 중심이 되는 형태를 따르면서도, 흡볼트적 대학 모델을 따라 연구 수월성과 실용성도 추구한 놀라운 기획이었다.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학교)은 일본 식민지 정부가 부과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적 모델을 연상시키는 실무용 ‘전문학교’가 아니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교육 자치공동체를 지향했다.

한 영미 대학들 중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학교는 옥스퍼드(1위), 하버드(3위), 케임브리지(6위), 예일(8위), 프린스턴(9위) 등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21/world-ranking#!/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ls/stats

51) Shunya Yoshimi, “Cross-boundary Cancer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kyo: What are Universities? Reexamining the History of Universities as the History of Media,”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44, 2014, p. i10.

52) Shils and Roberts, “The Diffusion of European Models outside Europe,” p. 224-26.

조선기독교대학 설립 과정은 선행 연구들이 잘 규명하고 있고, 이미 많은 지면을 사용한 본 논문이 새롭게 이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기에, 이 글의 논제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만 강조할 것이다. 첫째, 연희전문학교의 이름이 영어로는 “Chosen Christian College”이나, 한자어(일본어)로는 ‘조선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기에 ‘연희전문학교’로 학교 이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다. 1915년 4월에 공식 개교한 이 학교의 법인 명칭은 “조선기독교학교 연합재단”이었다. 식민지 정부는 학교의 영어 명칭에는 “Christian”을 넣는 것을 허용했으나, 한자어/일본어에서는 “기독교”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함께 이 대학 설립에 크게 기여한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증언한다.⁵³⁾ 둘째, 연희전문이 ‘전문학교’라고 불리었으나, 이는 ‘대학’을 지향한 ‘조선기독교대학’의 의도를 일본 식민지 정부가 억압한 기형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선교사들이 의도한 대로 자율적 대학으로서의 기독교 칼리지 설립은 조선에서는 특정 실용적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만 허용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제2차 조선교육령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923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조선에 세우므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고등교육 기관이 한반도에 등장한 후로는, 더욱더 식민지 조선에서 국립 제국대학과 사립 전문학교의 위계질서는 견고해졌다.⁵⁴⁾ 그러나 조선기독교대학의 영어 이름이 분명히 천명했고, 실제 이 학교의 전공 및 교육과정도 증언하듯, 이 학교는 ‘전문학교’가 아닌 ‘대학’을 지향했다. 문과, 상과, 수물과 등 대학 수준의 전공을 개설했을 뿐더러 포괄적인 교양 교육을 제공했다.⁵⁵⁾ 1917년에 개설된 조선기독교대학의 응용화학과의 경우, 같은 시기(1916년)에 설립된 경성공업전문학교의 실무 위주 교육과정과는 달리,

53) 조재국, 「연희전문학교 정관의 작성과 기독교 정체성의 확립」, 『신학논단』, 83, 2016, p. 373, 378.

54) 이기훈, 「에비슨과 일제하 고등교육—세브란스,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3-1, 2010, p. 20.

55) 이준식, 「연희전문학교와 근대 학문의 수용 및 발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 26.

영어 등 교양과목 비중이 40 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⁵⁶⁾ 이렇듯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대학 수준 교육기관이었던 조선기독교대학은 마침내 1930년에는 사립전문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식민지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⁵⁷⁾

위에서 강조한 이 두 가지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기독교대학의 정관 영문 본은 “조선기독교학교 연합재단”의 설립 목적이 “이 대학을 기독교 원칙들에 따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⁵⁸⁾ 일본어 본에서는 “기독교 원칙들”(Christian principles)이 “기독교주의”로 되어 있다.⁵⁹⁾ “원칙들”의 복합성이 단일한 이념을 뜻하는 “주의”로 바뀌게 된 이유나 배경은 선행연구들도 밝힌 바 없고, 본 연구자도 이를 규명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나, 원어와 번역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신앙이지 집단을 지배하는 “주의”가 아니다. 조선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주의”를 주입시키는 데 열중한 것이 아니라, 전문 고등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신앙을 키워주려 노력했다. 1940년에 발간된 영문 「개교 25주년 기념 편람」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채플에 들어와야 할 뿐 아니라 최소 1주일에 2시간 이상 성경과 기독교 관련 과목을 졸업할 때까지 들었다. 각 학생은 졸업 전까지 150회 채플에 참석하는데, 채플에서는 “기독교적 삶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시되었다.”⁶⁰⁾ 1934년 「연희전문학

56) 강명숙, 「일제 강점기 연희전문학교의 학칙을 통해 본 교육 운영」, 『교육사학연구』, 28-2, 2018, p. 12. 조선기독교대학의 과학 교육은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했다. 정운형, 「Arthur L. 베커 선교사의 근대 과학 교육」, 『인문과학』, 111, 2017, p. 100-105 참조.

57) 이기훈, 2010, p. 22.

58) “Annual Catalogue 1931-1932,” *Chosen Christian College Bulletin 1914-1931*, Chosen Christian College, 1931,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상)』, 서울: 선인, 2013, p. 123.

59) 「연희전문학교일람, 소화14년도, 1933」,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하)』, 서울: 선인, 2013, p. 196.

60) “25 Years of College Work,”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Twenty-Fifth Anniversary Booklet*, Chosen Christian College, 1940,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상)』, p. 474.

교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정규 수업 외에도 “교직원생도” 매일기도회와 교직원 학생 연합 부흥회가 1년 1회, 1주 동안 개최되었고, “학생기독교청년회”가 수시로 전도활동을 했으며, 1년 4회 야외예배가 열리는 등, 조선기독교대학은 모든 면에서 ‘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쓸 만 했다.⁶¹⁾ 조선기독교대학의 교장(President)으로서, 설립자 언더우드의 아들 H. H. 언더우드(원한경)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기구와 조직, 위원회와 교육과정 운영을 하며, 운동장에서나 강의실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성품을 항상 드러내 보여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원칙들”에 의거한 대학 운영은 1940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립 교육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의 큰 걱정거리”임을 원한경은 같은 문건에서 토로한다. 그가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부분은 자율적 교육 공동체로서 조선기독교대학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서교육, 채플 및 기타 종교 활동”이다.⁶²⁾ 조선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주의”를 선전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독교적 삶의 핵심적 문제들”을 채플에서 “제시”하고, 교육과 행정, 학생지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성품”을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하게 하려 진력한 기관이었다. 그러한 노력은 식민지 청년들에게 일본제국 경영에 유익한 실용적 지식을 전해주는 ‘전문학교’의 본업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기독교대학의 기독교 교육은 중세 기독교 문화가 낳은, 또한 “기독교 원칙들” 위에 세워진 서구 대학의 자치 전통을 계승하는 활동의 핵심이었다. 외부의 압력으로 기독교 교육이 제약받는 것은 조선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초기 대학 운영자들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조선기독교대학은 “college”라는 이름 그대로, 공동의 법규를 스스로 부여하

61) 「연희전문학교상황보고서, 1934」,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하)』, p. 58-59.

62) Horace H. Underwood,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Seoul, Korea, to the Board of Manangers 1934-35*, Chosen Christian College, 1935,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상)』, p. 82.

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율 공동체(collegium)를 지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미의 칼리지들은 초기에 큰 재정적 기여를 한 기부자를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학교의 이름으로 택했다. 조선기독교대학의 형제 기관인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교명은 이와 같이 기부자 루이스 헨리 세버런스(Louis Henry Severance)의 이름을 따랐다. 조선기독교대학의 경우, 학교 이름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초기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준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에 대한 감사를 1931년에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개교 25주년 기념 편람」 표지에 그의 사진을 게재하며 “고 존 T. 언더우드 씨, 본 칼리지의 가장 큰 기부자”라는 캡션을 달았다.⁶³⁾ 재정적 자립은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실질적인 근간이 되기에, 에비슨은 안식년을 이용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심히 모금활동을 했고, 1926년에서 1927년에는 약 30만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1929년에 조선기독교대학 7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에비슨은 다시 미국에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했다.⁶⁴⁾ 그러나 독립적 재정만으로 자율적 대학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공동체가 그 실체를 이뤄야 한다. 아직도 지역성이 강했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조선기독교대학은 여러 지방 출신들과 모든 교파의 기독교 신자 및 비신자를 골고루 포용하므로, 중세대학의 초지역적 보편성을 구현했다.⁶⁵⁾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율과 자치의 문화를 학습시키는 데도 학교 당국은 역점을 두었다. 1937년 교장 보고서에서는 “학생 규율 지도”라는 항목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준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지만” 모든 교수진이 “출석, 수업태도, 기숙사 생활 통제라는 이 중요한 교육적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63) *Repor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24-25*,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상)』, p. 66; “25 Years of College Work,” p. 472.

64) 이기훈, 2010, p. 22, 24.

65) 1934년 5월 기준, 학생들은 교파별로는 장로교파 30.3%, 감리교파 41.7%, 기타 기독교교파 1.1%, 비신자 26.9%이었다. 출신 도별로는 경기도 36.0%, 평안남도 11.0%, 황해도 7.4%, 함경남도 6.2%, 경상남도 5.9%, 강원도 5.7%, 평안북도 5.7%, 충청남도 5.4%, 경상북도 5.4%, 전라남도 3.7%, 전라북도 3.1%, 함경북도 2.8%, 충청북도 1.7%이었다. 『연희전문학교상황보고서, 1934』,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하)』, 선인, p. 54-55.

“자기 통제”를 구현한 자랑스러운 사례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이어서 “엄격한 지도로 일시적인 결과를 얻기 보다는 자기 통제를 가르치는” 것이 이 학교의 지침인데, 그것은 “자기 통제와 자기 규율의 가치들”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기독교대학은 일본 군국주의 문화가 장려하는 군대식의 “엄격한 지도”와는 전혀 다른 자율성의 문화를 꽃피우려 노력했다.⁶⁶⁾ 학생들은 학교 자치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자치동아리들을 결성하였고, 이 동아리들은 대학 밖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정치권력과 충돌한 일도 많았다.⁶⁷⁾ 말하자면 중세 대학 도시에서의 ‘대학’과 ‘도시’의 갈등을 재현한 셈이다.

조선 땅에 세워진 대학의 자율성은 조선인들이 교육과 행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허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H. H. 언더우드(원한경)는 교장 취임사에서 선교사들은 “서양인으로 이곳에 오는 것을 요구치 않고 조선사정에 깊이 동정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⁶⁸⁾ 조선기독교대학의 서양 선교사 교수들은 조선을 존중하였고, 조선기독교대학 재단은 우수한 조선인 교수들을 대거 임용하였다.⁶⁹⁾ 1931년 교수진 28명 중 조선인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교장과 부교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 교수들 또한 조선인이었고, 이중 상당수는 외국유학을 갔다 온 조선기독교대학 졸업생들이었다.⁷⁰⁾ 졸업생들이 “대리 교수”로서 교수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학교 운영에서 큰 목소리를 내었던 중세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학의 자율과 자치에서 졸업생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연희전문 졸업생 중 직접 후배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은 많지 않았지만, 모교 출신 교수들이 일찍부터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66) “President’s Report 1936-1937,”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for the year 1936-37*,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 (상)』, p. 107.

67) 홍성표, 「연희전문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간행물」, 『동방학지』, 184, 2018, p. 59-60.

68) 원한경, 「대학을 목표로」, 『연희동문회보』 3, 1935, p. 2.

69) 이기훈, 2010, p. 21.

70) 정선이, 「연희전문 문과의 교육」,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p. 82.

또한 나머지 동문들도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개교 25주년 편람은 이 학교가 “천 명 이상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이 젊은이들 중 놀랍게도 많은 수가 온갖 종류의 사회 기관과 공공 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⁷¹⁾ 모교의 동문들에 대한 자부심에 동문들은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화답했다. 1934년에 발간된 『연희동문회보』 제 2호는 “우리 반천의 연전동문우들은 모교연전을 아끼고 자랑하고 사랑하자 선전하자 우리는 모교와 연대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로 동문들을 독려했다.⁷²⁾ 또한 모교가 사실상 대학임에도 법적으로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동문들을 안타까워했다. 한 졸업생은 「모교의 장래를 위하여 기대하는 뗏가지」에서 무엇보다도 “대학으로의 승격”을 가장 간절히 염원했다.⁷³⁾

연희전문학교는 그 교육과정이나 구성원의 의식이나 문화 및 전통에 있어서 전문학교 그 이상이었다. 바로 그렇기에 그 이름을 이 글에서 일관되게 고집했듯이 ‘조선기독교대학’으로 고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설립자와 초기 운영자들의 안목, 미국 기독교인들의 기부, 내외국인 교수들의 헌신, 동문들의 기대와 사랑으로 가꾸어온 조선기독교대학은 한반도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한 서구적 학문과 교육 자치 단위인 “universitas”와 자율공동체 “collegium”을 구현했다. 이제껏 선행 연구들은 연희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이 흠볼트적 대학의 이상을 따르는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을 지향했다는 사실에 주로 주목해왔다. 그러나 연희전문학교가 서구의 자율적 대학 전통을 계승한 조선기독교대학이라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고등 지식 전수가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관립 ‘전문학교’의 본업이라면, 자율공동체 속에서 자율적 지성인을 키워 내는 것이 중세 때부터 내려온 서구 대학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다.

71) “25 Years of College Work,” p. 473.

72) 노재명, 「모교와 애착심」, 『연희동문회보』, 2, 1934년, p. 8.

73) 최상현, 「모교의 장래를 위하여 기대하는 뗏가지」, 『연희동문회보』, 1, 1932년, p. 4.

V. 맺음말

위에서 인용한 『연희동문회보』 기사 「모교의 장래를 위하여 기대하는 몇 가지」의 기고자는 모교가 대학으로 승격하여 “세계적으로 학술연구의 중진이 되”는 날을 꿈꾸었다. 그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룬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조선 기독교대학의 전통을 ‘연세정신’으로 계승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정체성 보존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대놓고 부인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흠볼트적 이상 내지는 이념이 (거기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제거해낸 왜곡된 형태로) 국내외의 온갖 대학 평가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세계적으로 학술연구의 중진”이 되라는 압력을 ‘개혁’의 이름으로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들에게 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학은 ‘상아탑’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고, 현실에 유용한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력 또한 거세다. 이 압력에 대해서 이 글이 할 말은 많지 않으나, 중세 대학 역사의 한 측면을 상기하는 것으로 논설을 대신하겠다.

“개혁”(reformatio)은 대학이 생기기 이전 10세기부터 수도원들이 원래의 설립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순수한 뿌리로 되돌아가 제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했다. “능동적 수도원”인 중세 대학에도 이러한 “reformatio”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중세대학의 “reformatio”는 대학이 추구해야 할, 또한 대학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정신인 겸손, 이웃 사랑, 경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다시 복원하는 ‘재정초’를 뜻했다. 물론 대학의 당연한 미덕인 “학문사랑”(amor sciendi)도 “reformatio”가 점검할 대상이었다. 다만, 학문의 발전은 과거 대가들이 이미 성취한 바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난쟁이가 거인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으로 봤기에, 지속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학문에서의 “reformatio”였다.⁷⁴⁾ ‘상아탑’도 19세기 후반에 와서 부정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으나, 12세기에 이 말로 대학을 지칭할 때

74) Rüe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p. 31-33. 개신교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순수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는 대학이 세상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아탑은 성모 마리아 공경에서 나온 비유이다. 성모의 순수한 처녀 수태를 상아의 하얀색이 상징했고, 탑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방벽을, 또한 (중세 탑들에는 내부 계단이 있었기에) 학문의 계단을 올라가는 대학의 수련과정을 상징했다. 상아탑으로서 대학은 학문과 정신의 순수함을 지켜내므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곳이었다.⁷⁵⁾

조선기독교대학은 이러한 중세적 의미에서, 대학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 정신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reformatio”를 구현하고, 자율적 학문과 교육 공동체의 상아탑을 쌓고 지켜내어 인류 구원 사역에 동참하려는 포부에서 세워진 기관이었다. 조선기독교대학의 후계자가 오늘날 유행하는 정치 이념의 혼수대로 ‘연세 정신’을 조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조선기독교대학의 이름과 역사를 망각하고 왜곡하려는 기획과 다름없다. 또한 조선기독교대학의 후예가 실용 학문과 유용한 지식 탐구만을 강조한다면, 조선기독교대학이 수행하고자 한 자유와 자율의 정신 함양을 억압하고자 전문요원 양성소를 연상시키는 ‘연희전문학교’로 격하시켜 이 학교를 인가해 준 일제 식민지 정책을 계승하는 셈이다.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들이 원래 원했던, 그리고 영어 명칭에 남겨놓은 이름은 조선기독교대학이었다. ‘연세정신’을 거론하는 그 어떠한 담론도, ‘연세정신’을 가르친다는 그 어떤 과목도, 설립자들의 이러한 의도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조선기독교대학, 연희전문학교, 자치 길드, 자율공동체, 서구대학의 역사

75) Rüe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4: *Universities since 1945*, edited by Walter Rüeg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16.

[참고문헌]

- 강명숙, 「일제 강점기 연희전문학교의 학칙을 통해 본 교육 운영」, 『교육사학연구』, 28-2, 2018, p. 1-26.
- 소병철, 「칸트적 이성 종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기독교 현실의 부정성」, 『인문과학』, 113호, 2018, p. 205-35.
-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상)』, 서울: 선인, 2013.
-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하)』, 서울: 선인, 2013.
- 『연희동문회회보』, 1932-1935.
- 이기훈, 「에비슨과 일제하 고등교육—세브란스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3-1, 2010, p. 15-25.
- 이준식, 「연희전문학교와 근대 학문의 수용 및 발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 1-57.
- 정운형, 「Arthur L. 베커 선교사의 근대 과학 교육」, 『인문과학』, 111, 2017, p. 87-113.
- 정선이, 「연희전문 문과의 교육」,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p. 59-111.
- 정현석, 「토마스 아퀴나스의 보편적 질료--형상론 비판의 발전 과정」, 『인문과학』, 119, 2020, p. 119-25.
- 조재국, 「연희전문학교 정관의 작성과 기독교 정체성의 확립」, 『신학논단』, 83, 2016, p. 361-98.
- 홍성표, 「연희전문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간행물」, 『동방학지』, 184, 2018, p. 55-83.
- Charle, Christophe, “Pattern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1800-1945)*, edited by Walter Rüeg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33-80.
- Curtius, Ernst Robert, *European Literature and the Latin Middle Ages*, trans. by Willard R. Tras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Demetz, Peter. *Prague in Black and Gold: The History of a City*. London: Penguin, 1997.
- Frijhoff, Willem, “Pattern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2: *Universities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edited by Hilde de Ridder-Symo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43-106.
- Gieysztor, Aleksander, “Management and Resourc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edited by H. de

- Ridder-Symo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108-43.
- Hammerstein, Notker, "Relations with Authority,"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2: *Universities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p. 113-53.
- Holt, Mack P.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2-16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Jones, Colin. *Paris: Biography of a City*. London: Penguin, 2004.
- Leedham-Green, Elisabeth. *A Concise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Leff, Gordon, "The Trivium and the Three Philosophi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307-35.
- Mumford, Lewis.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1.
- North, John, "The Quadrivium,"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337-59.
- Paletschek, Sylvia, "The Writing of University History and University Jubilees: German Examples," *Studium*, 5.3., 2012, p. 142-55.
- Prak, Maarten, *The Dutch Republic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 by Diane Webb,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Ricken, Norbert, "The Deliberate University: Remarks on the 'Idea of the University' from a Perspective of Knowledge,"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6.5, 2007, p. 481-98.
- Rüegg, Walter, "Epilogue: The Rise of Humanism,"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442-68.
- _____, "Forewor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xix-xxvii.
- _____,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3-34.
- _____,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2: *Universities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p. 3-42.
- _____,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1800-1945)*, p. 3-31.
- _____,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4: *Universities since 1945*, edited by Walter Rüeg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3-30.

Schwinges, Rainer Christoph, "Admission,"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171-94.

_____, "Student Education, Student Life,"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p. 195-242.

Shils, Edward and John Roberts, "The Diffusion of European Models outside Europe,"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3: *Universitie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1800-1945)*, p. 163-230.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Vol. 2.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Yoshimi, Shunya, "Cross-boundary Cancer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kyo: What are Universities? Reexamining the History of Universities as the History of Media,"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44. 2014, p. i8-i12.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57874#0DKW>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6151025202#csidx6682a7fc2b26e79bd3ebaf1eef19eb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4471>

<http://www.hani.co.kr/arti/well/news/950656.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3/2019081300225.html>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017071070712#0DKU>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21/world-ranking#!/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s/stats

https://www.treccani.it/enciclopedia/bologna_%28Enciclopedia-Italiana%29

<https://www.yonsei.ac.kr/sc/intro/history1.jsp>

<https://www.yonsei.ac.kr/sc/intro/ideology.jsp>

<http://ysweb.yonsei.ac.kr:8888/-Yonsei>

[국문초록]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은 ‘대학’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연희전문학교’로 존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학수준의 교육 기관이었다. ‘조선기독교대학’(연희전문)은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설립 정신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12세기부터 내려온 서구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전통을 한반도에 이식시킨 진정한 의미의 대학이었다. 중세 서구대학들은 교황 또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 광범위한 특권을 보호받은 자치 길드(universitas)들이었다. 실용학문이 아닌 “일곱 자유학문”(septem artes liberales)을 라틴어로 가르치는 중세대학들은 지역과 국적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했다. 또한 기독교적 자율공동체(collegium) 생활 속에서 도덕적 인물로 학생들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중시했다. 근세 시대로 접어들자 군주들의 세속권력 강화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고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학문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지식생산’으로 변하며, 서구의 자율적 대학들은 사회적 실용성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다각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또한 계몽주의 시대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자율적 자치대학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국립 고등 전문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여기에 맞서 학문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훔볼트(Humboldt)적 이상을 따르려는 움직임이 독일에서 등장했지만, 훔볼트적 이상은 독일에서보다도 중세적 자치 전통을 꾸준히 유지해온 영미 대학들에서 오히려 제대로 구현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조선에 세워진 ‘조선기독교대학’은 영미의 자율적 칼리지 모델을 따라 기독교 교육을 토대로 한 자율성 함양을 추구하였고, 높은 수준의 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훔볼트적인 연구 수월성 및 실사구시의 정신도 실현한 놀라운 기획이었다.

[Abstract]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the West as an Autonomous Institution and Chosen Christian College (Yonhui College)

Yoon, Hye-Joon (Yonsei University)

The founding of Chosen Christian College (Yonhui College)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a bold and potentially subversive project that went against the grain of the colonial regime's policy of confining higher education in Korea to technical instruction geared to the needs of the empire. As a veritable university college, Chosen Christian College grafted itself on the venerable history of Western university, rooted in the heritage of autonomy and self-governance granted by the Emperors and Popes to the medieval *universitas*, or the corporate bodies of students and scholars in Bologna, Paris, Oxford and Cambridge. The collegiate form of Chosen Christian College transplanted to the soils of Korea the ideal of self-discipline and self-respect of the medieval *collegium*. The pressures on the autonomous universities posed by early-modern nation states to become more practical and functional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and society took severe tolls on the universities in Continental Europe, even as the Humboldtian ideal of free research sought to safeguard some part of the academic autonomy enjoyed by medieval universities. It was the British and American universities, whose corporate independence had been well preserved throughout the ages, who creatively adopted the Humboldtian model to enrich the scholarly vitality of self-governing colleges. This combination of collegiate autonomy and academic pragmatism was the objective pursued by the founders of Chosen Christian College.

[Keywords] Chosen Christian College, Yonhui College, *universitas*, *collegium*, history of western university

논문투고일: 2020.11.21 / 논문심사일: 2020.11.27 / 게재확정일: 2020.12.11.

[저자연락처] hjyoon@yonsei.ac.kr